

골 잔치 재밌다, 팬 응원 뜨겁다...K리그1 '축구의 봄'

경기 당 관중 1만1003명, 2013년 이후 최다...경기 당 2.53골 '평평' 광주FC 홈 3경기 1만4704명...1부리그 복귀 대전과 함께 흥행 견인

2023 K리그1 초반 분위기가 뜨겁다. 4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K리그 1라운드 종료 기준 경기당 평균 관중이 2013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5라운드까지 진행된 30경기에 입장한 유료관중은 총 33만103명으로 경기당 평균 1만1003명이었었다. 이는 2013시즌 1만1206명 이후 K리그1 최다이다. 특히 유료 관중 공식 집계를 시작한 2018시즌 이후 가장 많은 관중이다.

2018시즌에는 5라운드 종료 기준 평균 관중 수는 7502명이었고, 2019시즌에는 9451명이었었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시즌에는 무관중으로 경기가 진행되기도 했다.

2021시즌 5라운드 평균 관중은 2394명, 2022시즌에는 평균 3542명이 경기장을 찾으면서 회복세를 보였다.

그리고 올 시즌에는 코로나19를 딛고 그라운드에서 다시 봄이 찾아왔다.

광주축구전용구장에도 축구팬들이 입장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가 올 시즌 안방에서 치른 세 경기에 1만4704명이 입장하면서 평균 관중수는 4901명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3월 5일 FC서울과의 홈 개막전에는 7357명이 입장해 광주축구전용구장 개장 이후 역대 최다 관중 기록도 작성했다.

뜨거워진 관중석 분위기에 맞춰 그라운드에서도 '골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5라운드까지 76골이 터지면 평균 2.53골이 기록

됐다. 5라운드 종료 기준으로 경기당 2.60골을 기록한 2016시즌에 이어 가장 많은 골이다.

경기 시작과 마무리도 화끈했다.

전반 10분 이내 기록된 골은 모두 9골, K리그1 최다 기록이다. 후반 45분 이후 나온 골도 8골에 이르렀다. 2016시즌 9골 이후 최다 골이다.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눈길을 사로잡는 흥미로운 경기가 펼쳐지면서 축구팬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1부 리그로 돌아온 광주와 대전의 뜨거운 질주도 눈에 띈다.

광주는 3승 2패(승점 9)를 기록하면서 5위에 자리하고 있다. 인천전에서 5골을 넣는 폭발력을 보여주면서 8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무엇보다 탄탄한 방패가 눈에 띈다. '수문장' 김경민을 앞세운 광주는 5경기에서 4골만 허용하면서 5연승 질주 중인 1위 울산현대(3실점)에 이어 최소실점 2위에 자리하고 있다.

광주와 함께 승격팀이 된 대전도 5경기에서 3승 2무(승점 11)를 기록하면서 무패 행진 속 2위에 자리하고 있다. 대전은 5경기에서 11골을 몰아넣으면서 득점부분에서 울산과 공동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광주와 대전 두 팀은 5라운드까지 승점 20점을 만들면서 승강제 도입 후 2팀이 승격한 시즌에서 가장 많은 승점을 올리고 있다. 이 부분 2위 기록인 2017시즌 11점(대구, 강원)보다 9점이나 많은 승점을 합작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5라운드 일정을 마무리한 K리그1이 경기당 평균 관중 1만1003명을 기록하는 등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홈에서 3경기를 치른 광주FC도 평균 관중도 4901명을 기록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일 수원FC와 5라운드 경기가 끝난 뒤 팬들과 기념 촬영을 하는 광주 선수단.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광주FC 연승 이끈 이민기·박한빈 5라운드 '베스트 11'

광주FC의 연승을 이끈 이민기와 박한빈이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4일 '하나원큐 K리그1 2023' 5라운드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광주 이민기와 박한빈이 미드필더 두 자리를 차지했다.

이민기는 지난 1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수원FC와의 홈경기에서 전반 4분 코너킥 상황에서 뒤로 흐른 공을 잡아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날리며 선제골을 장식했다.

'골대 불온'에 울었던 박한빈은 전반 36분 산드로의 패스를 받아 오른발로 득점에 성공하면서 2-0 승리를 연출했다. 광주는 이 승리로 시즌 첫 연승이자 3승째에 성공, 5위(승점 9)에 랭크됐다.

MVP는 포항스틸러스의 백성동에게 돌아갔다. 전북현대와의 원정경기에서 후반 교체 투입된 백성동은 1골 1도움으로 팀의 2-1 역전승을 이끌었다.



이민기 박한빈

베스트 팀은 울산이 선정됐다. 울산은 제주유나이티드와의 원정경기에서 정승현, 주만규, 강운규의 연속골로 3-1 승리를 거뒀다. 울산은 개막 5연승을 달리며 선두 자리를 굳게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지켰다.

베스트 매치는 5골이 터진 대전하나티스즈와 FC서울의 경기다.

이 경기는 2-2로 맞선 후반 43분 터진 마사의 골로 3-2, 대전의 승리로 끝났다.

한편 K리그2 5라운드 MVP는 성남FC의 크리스에게 돌아갔다.

크리스는 충북청주와의 홈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성남의 3-2 승리의 주역이 됐다. 화끈한 골잔치가 펼쳐진 이 경기는 K리그2 5라운드 베스트 매치가 됐다.

전안시티FC와의 원정경기에서 전남드래곤즈의 선제골을 기록한 플라나와 멀티골을 장식한 여승원은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전남은 이 경기에서 자책골을 기록했지만 뜨거운 공세로 3-1 승리를 거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대한항공 챔피언십 우승...MVP에 세터 한선수 남자부 정규리그 사상 첫 세터 MVP도 도전

대한항공의 우승으로 막을 내린 2022-2023 V리그 챔피언십결정전에서 가장 빛나는 '별'은 세터 한선수(38)였다.

한선은 3일 열린 현대캐피탈과 챔피언십결정 3차전에서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세트 점수 3-2 승리를 견인하고 시리즈를 3전 전승으로 끝냈다.

기자단 투표 31표 가운데 23표를 얻어 V리그 남녀부를 통틀어 최고령 챔피언십 최우수선수(MVP)에 등극한 그는 또 하나의 이정표를 향해 달려간다.

바로 남자부 사상 최초의 세터 정규리그 MVP 수상이다.

V리그 원년인 2005년부터 지난 시즌까지 18번 치른 정규리그 MVP 시상식은 사실상 날개 공격수들의 잔치날이었다.

2017-2018시즌 신영석(한국전력·당시 현대캐피탈)이 미들 블로커로는 사상 처음으로 정규리그 MVP를 수상했고, 이후 시상식에서도 정지석(대한항공), 나경복(우리카드), 노우모리 케이타(KB손해보험) 등 공격수들이 줄줄이 상을 탔다.

여자부에서는 이효희 한국도로공사 코치가 현역 시절인 2013-2014시즌과 2014-2015시즌에 세터로 정규리그 MVP를 받은 사례가 있다.

한선은 이미 투표를 끝난 정규리그 MVP의 유력한 수상 후보로 거론된다.

챔피언십결정전 우승과 무관하게, 대한항공 코트의 사령관으로 3시즌 연속 정규리그 1위를 견인한 일등 공신이 때문이다.

한선은 이번 시즌 주장을 맡아 팀의 대소사를 일일이 처리하면서도 정상급 기량을 유지했다.

이번 시즌 남자부는 리그를 지배했던 외국인 선수나 국내 날개 공격수가 보이지 않았기에 '세터 MVP' 탄생 적기다.



3일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남자프로배구 챔피언십결정전 경기에서 MVP를 수상한 대한항공 한선수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만약 한선수가 챔피언십결정전에 이어 정규리그 MVP까지 차지하면 역대 남자부 9번째 MVP 동시 수상의 주인공이 된다.

이에 대해 한선은 "상을 받으면 좋겠지만, 상을 생각하고 시즌을 치를 여유가 없었다"며 "상에 대한 욕심은 부리지 않았다. 받으면 좋지만, 지금은 우승한 것 자체가 기쁘다"고 속내를 밝혔다.

한편 2022-2023시즌을 마무리하는 V리그 시상식은 10일 오후 4시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졸속 사면 논란' 축구협회 부회장·위원장 총사퇴 가닥

이영표·이동국 부회장 먼저 사퇴

대한축구협회 이사회를 구성하는 부회장들과 위원장들이 승부 조작 연루 등의 사유로 징계 중인 축구인들에 대한 '기습' 사면과 철회 조치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4일 "이날 오전 임원 회의를 마친 뒤 부회장들과 위원장들이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동반 사퇴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했다"라며 "협회 행정의 공백을 조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회장과 위원장들이 책임을 지는 방법을 함께 모색했다"고 밝혔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28일 한국과 우루과이의 대

표팀 평가전을 앞두고 서울월드컵경기장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어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등 100명을 사면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사면 대상에는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가담했다가 제명된 선수 50명 가운데 48명도 포함됐다.

하지만 승부조작 사건의 당사자들을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유로 충분한 논의 과정도 없이 갑작스럽게 사면한 데 대해 축구계 안팎에선 거센 역풍이 일었고, 결국 축구협회는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다시 열어 사면을 철회했다.

사면 철회에도 축구협회를 향한 비난 여론이 계

속 이어지자 결국 '졸속 사면'에 가장 책임이 큰 이사회 구성원들이 사퇴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더불어 축구협회 실무 책임자인 전무이사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사회 멤버로 축구대표팀 출신인 이영표 부회장, 이동국 부회장, 조원희 사회공헌위원장이 먼저 축구협회에 사퇴 의사를 밝히고 물러났다. 부회장과 위원장은 축구협회 '당연직 이사'라서 보직을 사퇴하면 이사회에서 자동으로 빠지게 된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사퇴하면 일시적으로 축구협회의 모든 행정이 마비될 수 있다"라며 "축구협회 행정을 고려해 최적의 수습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스페이의 문단속, 샷건 웨딩
- 2관 리바운드, 장기자랑
- 3관 리바운드
- 4관 에어
- 5관 스페이의 문단속
- 6관 스페이의 문단속
- 9관 던전 앤 드래곤: 도적들의 명예
- 7관 싸네카를 | 뮤턴트 이스케이프, 소울메이트, 용남이
- 8관 싸네카를 | 에어, 소울메이트, 오토라는 남자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2023년 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3-04-01(토) ~ 2023-04-30(일)

매주 수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즐거움 문화산책

스즈메의 문단속

국악이 있다 전통을 잇다